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6년도 표어 ◎

"성숙한 교회를 이루자"(엡4:13)

◎ 생활지침 ◎

섬기는 생활
주는 생활
경건한 생활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기독교교도소 세운다

추진위, 소년보호시설 등 3가지 사업방향 확정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기독교교도소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이종윤)는 25일 모임을 갖고 그동안 수차례 세미나와 회의를 통해 제시된 문제들을 종합하여 앞으로 해야 할 사업방향을 확정지었다.

첫째로 기독교 소년보호시설을 운영한다. 둘째로 기독교교도소 및 소년원을 신설하되 산업체밀집지역을 후보지로 물색 추진하며 셋째로 ○○감호소를 기독교감호소로 운영하는 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같은 안의 성경적 또는 법률적 근거가 확실하고 실현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충분하므로 사회적 분위기조성과 물질적 지원을 교계에 호소하여 재범율을 낮추고 복음전도의 기회를 만드는 일을 추진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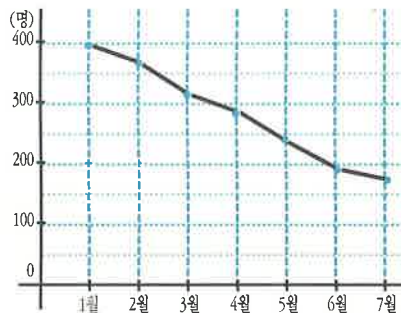
현재 추진위원들은 법조인 7인, 대학교수 4인, 교정전문인 4인, 목사 5인, 국회의원 1인, 언론인 1인, 경영인 2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들은 대부분 전문인들이므로 오는 10월까지 각

계각층의 지도자들과 의견조정을 거쳐 한국교계 전체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추진위를 재편성하기로 하였다.



주간
평가

"주간 성경공부 잘 하고 계십니까?"



1년 1독을 위한 주간성경공부. 그간 한번 이상 참여한 성도는 6월말 현재 542명에 달한다.

그런데 7월 현재 참가인원은 처음의 반 정도다.

그 원인은 처음의 결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도중 하차한 경우도 많지만 개인적으로는 꾸준히 성경공부를 하면서도 제출하지 않는 성도, 성경읽기는 지속적으로 하지만 문제지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기독교교도소 설립의 필요성

지금까지는 범죄자를 다루는 일은 국가의 고유영역으로 여겨졌고 교회는 보조적인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전과자의 높은 재범율이 보여주듯 정부의 범죄자 교정사업이 거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거듭 나타나고 있다. 범죄자에 대한 처우가 정돈되지 않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이른바 유전범죄, 무전범죄, 인권 모독적인 수사관행 등) 공안당국도 범죄문제에 속수무책인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10여 년 전부터 몇몇 기독교 전통이 깊은 나라에서 성경적인 원칙에 의거한 형사정책이 모색되었고 이를 실천한 프로그램들이 성공을 거두었다. 이에따라 성경적 원리에 입각한 형사 정책은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브라질의 휴마타 교도소는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순수한 기독교적인 접근방식으로 지난 20여 년동안 범죄자 처우에 힘써 성

공을 거둔 이 작은 교도소의 사례는 우리나라도 기독교 교도소를 도입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입증해 주고 있다.

1. 현행 교도소 제도의 문제점

날로 심도를 더해가는 청소년 비행과 늘어만 가는 전과자의 재범행위는 가석방 제한, 가중처벌 등으로 이루어진 현 중벌주의 형사정책이 가진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문제점은 현행 교정교화프로그램이 종교적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걸출기식의 종교교화활동으로는 재소자의 심성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개교회나 기독교단체의 범죄자 선교복지사업은 체계가 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에서는 전신홍보용 사업이라는 비난도 이는 형편이다. 또 재소자 교정 교화서비스가 가족과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고 재소자 교정 교화 프로그램은 출소와 동시에 완전히 중단되어 범죄예방과 갱생지원에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다.

2. 기독교교도소의 사회적 공헌

기독교교도소는 영적으로 비뚤어진 범죄자

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교도소 개념과 큰 차이가 있다.

종교적 일관성이 결여된 현행 프로그램을 체계있게 진행할 수 있게 하며 타종교·일반교도소와의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재소자 교화서비스의 질적 향상도 유도할 수 있다. 물론 선교에도 지대한 공헌을 한다.

3. 우리나라에서의 기독교교도소 가능성

우리나라 교도소에는 이미 교도관 신우회가 조직되어 있고 많은 기독교 교도관들이 기독교교도소설립을 숙원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 많은 교회가 교도소 선교에 관심을 갖고 이미 선교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외국의 성공적 사례가 이미 나와있고 기독교교도소설립을 위한 객관적 자료나 세부 시행안도 완비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는 풍부한 인적, 물질 자원이 갖춰져 있다.

이에따라 교계는 앞으로 범죄문제에 대한 기독교회의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위한 공감대가 조성되면 머지않아 기독교교도소 설립은 현실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창세기
강해



야곱의 결단

(창세기 43장 1 ~ 15절)

이중윤 목사

가나안 땅에 기근은 계속되었습니다. 야곱은 그의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곡물을 더 많이 사오도록 요청합니다(1~2절).

유다는 베냐민이 함께 가지 않는 한 애굽에 갈 수 없다고 합니다. 야곱은 진퇴양난에 처했습니다. 요셉을 잃어버렸는데 야곱조차 잃어버린다면 그는 머리를 풀고 음부로 내려가는 슬픔을 맛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자신을 담보로 하고 베냐민과 함께 가도록 허락해 줄 것을 강권합니다. 이같은 요청에 대한 야곱의 결단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 생명을 얻기 위한 결단

야곱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삭의 아들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그의 결단은 하나님 앞에서 내린 신앙적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더 크고 더 중요한 것을 위해 자기를 포기하고 결심을 변경하였습니다. 베냐민을 데려가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자기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사람들이 비록 손아래사람들이었으나 야곱은 이성의 지배를 받으려 했습니다. 차라리 잡혀서 죽더라도 생명을 구하러 가는 편이 굶어 죽는 것보다는 낫다고 여기고 처음의 결심과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베냐민과 함께 가야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른 길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승인한 것입니다(11절).

“그렇다면 네 아우를 데리고 가라.” 위협부담은 있으나 굶어 죽는 것보다는 보내는 편이 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람이 자기 소유물과 생명을 바꾸지는 않습니다(욥2:4). 그러나 기근은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과 결심이 중요한 것이지만 목숨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을 변경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잠시 있다가 물거품처럼 사라질 목숨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생을 얻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변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막8:36).

지조는 덕이되지만 잘못된 고집은 꺾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후회하지 않을 불변의 결정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더 큰 것, 더

중요한 것을 위해 내 생각과 고집을 변화시키되 특별히 생명을 얻는 일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2. 평화를 얻기 위한 결단

야곱은 평화를 얻기 위해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인물입니다. 쌀자루에서 발견된 ‘지불되었던 돈’에 대해 “혹차착이 있었을지 모르니 다시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12절).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잘못 들어온 수입, 혹 다른 사람의 실수로 인해 획득한 것을 묵인하는 것은 도적질과 같습니다. 속히 되돌려주던가 아니면 공적인 곳에 소용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손해가 나더라도 잘못된 계산임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평화가 옵니다. 자신도 평화를 얻고 다른 사람과도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야곱은 또한 잡혀있는 시므온의 보석금이나 벌금이 부과되거나 곡물값이 올랐을지도 모르니 처음 가져갔던 것의 두배의 돈을 가져가라고 합니다. 야곱은 어떻게든지 화평을 이루려고 노력합니다. 다른 민족, 혹은 이웃과 화평을 이루고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도 값비싼 대가를 치루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은 가나안의 토산물 즉 유향과 꿀, 몰약, 비자, 파단행, 등을 애굽 총리에게 바치라고 조언합니다. 이것이 뇌물처럼 보일 수 있으나 선물과 뇌물은 다릅니다. 뇌물은 자기 욕심을 이루려는 것이고 선물은 사랑과 존경의 표시이며 노를 풀기 위한 것입니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느니라”(잠21:41).

야곱은 비싼 것을 지불하고서라도 화평을 얻고 생명을 얻겠다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사 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와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3. 은혜를 얻기 위한 결단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14절). 이것이 야곱의 신관입니다. 야곱은 예전에 형 에서와 화해하고자 할 때 선물을 보내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형의 노여움을 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도, 환경도 변화시키십니

다.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일을 모두 다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고난의 수를 세어보기 전에 은혜의 수를 세어 보아라. 은혜의 수가 훨씬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의 수를 세기 전에 은혜의 수를 세기 시작하면 우리 삶의 전부가 은혜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며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처럼 우리도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결정을 유보할 줄 알고, 화평을 이루기 위해 희생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 순례자 컬럼 ✧

“진리를 알지니”

경제나 군사력 특히 요즈음엔 스포츠를 통해 개인과 나라의 번영을 찾아보려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심각히 생각해야 할 것은 각 분야에서 진리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지 못한다면 현대문명도 망각의 비운 속에 빠지게 될 것이며 인간 영혼은 허무주의의 수렁에서 헤매게 될 것이다.

진리를 십자가에 못박은 유대인이나 진리를 향해 침 뱉었던 로마인들처럼 현대인은 오만하게도 진리를 무시하고 무대접하고 있지만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못하면 빼 없는 인생이요 피 없는 생명처럼 허무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모든 일을 참되게 진리 안에서 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떠난 진리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였다.

중등부수련회에서

"저도 변했어요"

7. 22 ~ 7. 25.

충북영동 선의은행연수원



▲ 목사님들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기도를 하셨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했다. 목사님께서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기도해 주신 것이다! 주님께 너무 감사했다.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심을 믿는다.

〈김재연〉

▲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교회도 졸업해 버린(?) 나는 친구의 권유로 다시 교회오게 된 것이 2주일도 채 안되었다. 그간 내 생활은 선생님, 부모님, 친구들을 너무 많이 실망시키고 나 스스로도 방황하는 생활의 연속이었다. 그때를 돌이켜보면 내 자신이 너무 밋고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간다. 다행히 좋은 친구의 인도로 교회에 오게 되었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를 위해 기도해준 친구의 열심과 이번 수련회를 통해 알게 된 언니, 오빠, 친구들의 친절함을 잊을 수 없다. 목사님의 설교말씀과 기도시간을 통해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 지금 내 마음에는 기쁨과 자신감이 넘친다.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이다. 앞으로 교회에 꾸준히 다니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흠족할만한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했다. 수련회의 시간들을 고운 추억으로 간직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고 싶다. 〈박윤미〉

▲ '하나님은 매일 나와 동행하시고 항상 도와주시는 분이요' 이번 수련회에서 이것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나의 기도하는 방법, 기도의 자세, 예배드리는

마음가짐이 달라졌다. 장난 아니면 건성으로 드리던 기도에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를 할 수 있었고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성경을 읽고 이해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된 수련회였다.

〈박승기〉

▲ 이번 수련회에 못 올 뻔했는데 정세형 선생님의 도움으로 버스에 탈 수 있었다. 그리고 "민기야, 고맙다. 나를 교회로 데려와 주어서."

〈육관영〉

▲ 은혜, 은혜, 은혜 그 자체였다.

〈이윤혜〉

▲ 모두 눈물 흘리며 땀을 흘리며 주님께 구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너무나 은혜스러웠다. 이런 변화된 마음이 수련회에서만 말고 집에 돌아가 세상 속에 살면서도 계속 이어지길 원한다. 〈조현정〉

▲ 애를 써도 나오지 않던 기도 와 눈물이 목사님께서 내 머리를 잡으시고 온 힘을 다해 기도해 주시는 순간, 마구 쏟아져 나왔다. '역시 목사님은 다르시구나!' 아직도 생생히 들려오는듯한 목사님 음성; "그래, 보람에 기도하면 모든 게 잘 될거야!" 〈이보람〉

▲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내가 정말 부끄럽고 싫어서 이

번 수련회를 통해 새로워지고 싶었다. 주님께서 이런 나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역사하셨다. 둘째 날 밤 나는 부끄럽고 나약한 존재란 것을 알게 되었고 진정으로 눈물로 회개할 수 있었다. 나쁜만 아니라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여기 저기에서 들려왔다. 〈이민산〉

▲ 가족과의 바다행이 약속되었던 이번 주. 나는 갈등에 쌓였으나 진정으로 기도해 본적이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약해진 믿음을 회복하고 싶어 과감히 수련회장으로 향했다. 참 잘 왔다.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 자녀로서의 모습을 되찾은 기분이다. 주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이 이렇게 기쁨 줄이야! 〈이연환〉

▲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헤매지 않고 목자를 잘 따르는 양이 되게 해 주세요.

〈이선구〉

▲ 친구들과의 우정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돈독해진 수양회였다.

〈김한나〉

▲ 성수주일 · 십일조생활 · 부모님공경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통로가 된다는 특강을 맘껏 웃고 울면서 들었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

〈임만석〉

▲ 처음 온 수련회, 모든 것이

신기하고도 뜻깊은 순간들이었다. 집에 돌아가면 우선 아빠엄마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야지. 주님이 늘 함께 계시니 공부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어디에선가 방황하고 있을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

〈전미성〉

▲ 항상 혼자라고 생각했었다. 주위에 친구들이 있어도 외로웠고 그들을 의식적으로 피하기도 했었다. 그런데 이번에 친구들이 진정으로 나를 위해 준다는 사실을 느꼈고 이유없이 피했던 것, 무시했던 것에 대해 그들에게 다가가 사과하게 되었다.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주님, 사랑해요." 〈김혜린〉

▲ 놀러가는 기분으로 수련회에 왔다. 그런데 자판기도 없고 매점도 없고 심지어 공중전화도 없는 곳이었다. 그러나 맑은 강에서 맘껏 즐기는 시간은 정말 환상적이었다. 무엇보다 난생 처음 평평 울며 기도했다. 내 기억에서 영영 잊혀지지 않을 수련회였다.

〈정성우〉

▲ 창세기, 출애굽기를 통독했다. 성취감이 가득하다. 〈강신원〉

▲ 이제까지 참석해 본 수련회 중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하였다.

〈강경득〉

두 다락방 이야기

성경에 두 개의 다락방이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최후의 만찬을 베푸신 다락방(눅2장 12절 이하)과 오순절 직전의 다락방(사도행전 1장)이다.

첫번째 다락방의 사건과 두번째 다락방 사건의 거리는 6주정도. 그런데 두 다락방의 분위기는 매우 대조적인 것이었다. '누가 높으냐'라고 하며 싸우는 다락방과 일치를 이룬 다락방의 모습이다.

첫번째 다락방에 가롯유다가 있었다. 그는 돈에는 충실했으나 하나님께는 충성하지 못했다. 그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모르게 자기만의 행동을 했다. 돈을 감추기도 했던 것이다. 그는 결국 12제자의 반열에서 슬쩍 떠나 후회의 자리로 갔다. 내가 욕심을 부리는 한 교회의 연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남보다 내가 낫다는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 그런데 그는 주님을 세 번 부인했다. 주님은 다시 어부의 자리로 내려가 무력함에 빠져 있는 그에게 주님을 사랑하는가를 물으며 사명을 다시 주셨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도마의 의심이 문제가 되었다. 그는 볼 때까지는 믿지 못하겠다는 비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다. 안되는 쪽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일치에는 문제가 생기고 만다. 주님은 그에게 증거를 제시하셨다.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으라"고 하셨다. 믿음은 산을 옮길만한 능력이 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야고보와 요한은 야심에 찬 인물이었다. 그들의 어머니로부터 주입된 야심으로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각각 오른쪽과 왼쪽에 앉기를 바랬다. 틀린 생각은 아니었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제자들은 화를 냈다. 우리도 업적보다는 지위에 더 관심을 두는 경우가 있다. 주님은 천국은 섬기는 자의 것임을 가르쳐 주시면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다.

첫번째 다락방은 분열되었다. 12제자는 흩어졌다. 두려워하며 도망쳤다.

반면 두번째 다락방에 올라가 보면 우리는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 있다. 그들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쁨이 충만했다. 그들의 초점은 십자가에 못박히시고 부활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께만 맞추어져 있었고, 모두가 힘써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이미 사라진 가롯 유다의 자리를 메꾸기 위해 맞디아를 재선하는 일에 한마음이 되었다.

우리는 가롯유다의 욕심, 베드로의 교만, 도마의 의심, 야고보와 요한의 잘못된 야망을 기억해야 한다. 순수한 신앙이 내게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한다. 그리고 바로 서기만 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변화하는 데에는 시간도 필요하다. 모든 사람이 이 일을 이루려고 힘을 합쳐야 하며 무엇보다도 믿음을 가져야 한다. 오순절 직전 다락방 모습을 우리 교회에서도 이루어자.

<이 글은 지난 주 찬양예배에서 톰 휴스턴 목사가 설교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21C에 걸맞는 역할 위해 새 예배당 건축은 꼭 필요"

건축관련 민원심의회 보고

우리교회 새 예배당 건축관련 집단민원심의회가 25일(목) 강남구청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구청측에서 국과장 7인이 참여하였고 구의원 3인, 민원측 대표 3인과 이용선·오정수 장로와 김종윤 집사가 우리교회 대표로 참석하여 1시간 30분동안 심도있는 의견교환과 설전을 폈다.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삼풍백화점이 붕괴되는 이 사회에서 건축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한강에 교량을 건설할 수 없었다거나 고층건물을 세울 수 없었다면 우리사회는 진보가 없을 것이다."

"20평크기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은 호화주택에 거한다고 불평할 수 있듯이 아담하고 작은 교회 운운은 지극히 주관적 판단이며 21세기를 바라보고 있는 한국교회가 민족 복음화와 세계복음화를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릇을 준비하고자 하는 것이지 결코 무리한 것이 아니다."

"특히 우리는 신뢰할 만한 건설회사를 시공회사로 지정하여 발주할 것이며 그와 같은 안전시공에도 불구하고 지하굴착으로 인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면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모든 책임을 질 것이다." 우리측은 민원측의 주장에 이같은 답을 해 주었다.

한가지 놀랄만한 일은 당일 참여한 민원측 대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의 교인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우리교회 성도들의 밀물같은 기도의 응원에 힘입어 심의회를 잘 마칠 수 있었다.

강남구청은 일주일 내에 모종의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환영합니다. 새가족 여러분!

오늘 찬양예배 시 7월 새가족 환영회를 갖습니다.

* 7월의 새가족 *

명세범 장인숙 김재봉 박경자 김대용 오우경 최금자 강미화
이정일 유희정 이인선 그리고 오늘 등록하신 분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춘천기독교방송(HLDC 93.7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장』	주일 오후 10시 ~ 10시 45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교회학교의 여름수련회를 위해
2. 새가족의 신앙성숙을 위해
3. 기독교교도소 설립을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殿)을 건축할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